

# 청풍호를 향한 목소리

제출자: 김지형  
지도교사: 종명쌤

## 목차

1. 청풍호의 역사
  - (1) 청풍호는 왜 생겼을까?
  - (2) 청풍호는 어떻게 생겼을까?
  - (3) 청풍호일까? 충주호일까?
2. 청풍호 내말을 들어봐!
  - (1) 마을을 지키시는 분들의 목소리
  - (2) 고향을 떠나신 분들의 마음
  - (3)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의 생각
3. 후기
  - (1) 나의 후기
  - (2) 청풍호에 대한 나의 생각

## 1. 청풍호의 역사

### (1)청풍호는 왜 생겼을까?

충주댐은 왜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생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 충주댐이 생긴 이유는 한강유역종합개발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또 댐이 생기기전 하류 쪽에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도시 산업 시설 농경지등이 많았다. 하지만 댐이 600백만m3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하류지역에 있는 농경지나 도시 산업시설이 홍수피해에서 많이 벗어났다.

### (2)청풍호는 어떻게 생겼을까??

충주댐은 1966년부터1985년까지에 걸쳐 만들어진 댐이다. 이 댐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1966~1977년까지 한강유역종합 조사와 충주 다목적댐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했고, 1978년6월 3일에 충주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진입 도로 공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978년9월16일에는 충주댐 수몰지구 대책사무소 설치 조례하고 직제규칙 등이 공포가 됐다. 1979년1월 8일에 충주댐 수몰지구 대책사무소를 개소를 했고 그 해 11월22일에 충주댐 수몰지구 하천예정지에 대한 고시가 있었다. 1980년1월10일에 충주댐공사가 착공되고 1월22일에 충주 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 계획 고사가 있었다. 1979년3월~1980년12월 까지 보상 물건 기본 실태 조사를 완료 하였다. 1981년 8월2일부터 수몰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1983년7월20일에 잔양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고 1984년 11월1일에 충주 다목적댐담수개시 행사가 거행됐다. 1985년 5월15일에 제1호 발전기가, 1985년 7월1일에 제 2호 발전기가 만들어 지고 1985년 10월17일에 대통령 임석하에 충주댐 준공식이 거행됐다. 이로써 약7년4개월이 걸친 충주댐 공사가 완료 되었다.

### (3)청풍호일까? 충주호일까?

과연 이 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 난 청풍호 라고 생각 한다. 왜냐! 물론 내가 제천에 사는 이유도 있지만 우선 이 호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건 제천이다. 이걸 확실하다. 그런데 충주는 그 댐의 이름은 충주댐이다. 그리고 이 충주댐이 그 호수를 막고 있으니 그 호수 이름은 충주호다. 라는 의견이다. 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호수는 청풍호다. 아까 말했듯이 제천이 충주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호수 이름이 충주호 라는 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 2.청풍호 내말을 들어봐!!

### (1)마을을 지키시는 분들의 목소리

① 청풍호 니가 우리 마을의 발전을 정지 시켰어!(류금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구~~우리 귀여운 손자 지형이 왔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 주시거죠?”

“당연하지~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음~ 그래! 할아버지가 살았던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마!”

“와~ 재미있겠다!!”

이 할아버지의 마을은 청풍호 는 호수 밑에 있단다. 왜냐하면 저 호수가 생기면서 마을들이 다 가라앉았거든 가라앉기 전에 내가 우리 마을에서 살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

할아버지의 마을은 황석리라는 마을이란다. 이 마을은 7개의 부락으로 나뉘어져 있었지 황서, 후산, 사오, 장서, 부산, 단둔, 바흔 이렇게 말이야 이 7개의 부락에 있는 아이들이 한 학교를 다녔었어. 그 학교는 바로 황석 초등학교지 모든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녔었지 그때는 초등학교 아동이 700명이나 됐어 엄청난 숫자지. 게다가 이 황석리가 청풍면에서 제일 컸지 인구도 300명이 넘었고 말이야 또 도로는 비포장이었지만 교통도 정말로 좋았어. 그때는 진짜로 살 맛 났었던단다. 근데 갑자기 댐을 건설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몇

명을 팀으로 꾸려 우리는 마을을 지키려고 했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들이 없는 거야 생산해서 먹고 살 들이 없어서 마을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 그래도 애항심이 있어, 1500평 정도되 땅에 우리 마을을 조성했지 그때 당시 13집이 모여서 살았어 아마 인원은 4~50명 정도 있지. 하지만 여기서 생산 하는 게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다 나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애들한테 의지하고 세월을 보냈어, 지금은 현재 18명이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농사도 못하고 뭘 생산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거든 이제 한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집은 폐가가 돼버려 이래서 18명밖에 안 남았지 사람들은 옛날보다 문화적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없으니까 사는 맛이 안나. 그리고 지금은 도로를 포장한답시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교통이 좋아지지 않아 제천을 나갈려고 해도 차 시간이 안 맞아서 많이 난처 할때가 많지 현재 생활은 그래.

헌데 지금 고향을 떠난 친구들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뭘 생산할 수가 없어어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란다. 나이가 죽을 때가 되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오지는 않고 마을은 점점 폐쇄되지..... 이 댐 주변의 마을들은 다 그래 황석리만 그러는 게 아니지 휴..... 좀 쉬자 할아버지도 힘들구나.....

이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계속 이 황석리 마을에 살았단다. 태어난 곳은 후산리고 그곳에서 자라다가 황석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청풍중학교를 다녔단다. 거리는 한 12km정도 되는데 그곳을 땀날 걸어서 3년동안 다녔지. 음..... 학교 이야기를 꺼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는 구나 이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밥 먹고 청풍중학교로 걸어갔었어 청풍을 가려면 배를 타야돼지, 청풍나루에 내 친구들이 다모여서 배를 타고 학교에 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재미있었지 또 있단다. 학교가는 날에 장마가 지면 강의 물이 불어나서 배를 못 띄웠어 그러면 학교를 못가지, 그럼 저쪽 반대편에서 선생님들이 오지 말라고 하셔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즐거웠지 게다가 그렇게 해서 학교를 못가면 결석 처리도 안됐어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정말로 즐거웠었지 근데 이제는 정말로 추억이구나..... 지금 이 마을에서 제일 어린사람이 76세야 우리 마을 이장님이신데 이렇게 늙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옛 추억이 그리구나.

옛날에는 옥수수 참외 수박 등을 심었단다. 강가여서 그런지 땅이 한쪽은 질이 좋고 한쪽은 모래땅이었지 그래서 질 좋은 데에는 참외 수박을 심고 모래땅에다가는 옥수수를 심었지 그때는 정말로 생산이 잘되서 서울에 있는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다 사서 가져갔지 가을에는 배추 같은 것들을 주로 사서 가져갔지 그때의 농사는 정말로 좋았단다. 돈도 많이 벌고 맛도 좋고 정말로 좋았지. 그런데 물이 들어와서 땅을 다 잃고 그냥 산쪽에 애들 줄 것 만 간단하게 농사를 짓고 있단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중국산은 안 사먹어 다 내가 해서 주니까 사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청풍호를 이렇게 생각해, 국가적으로 보면 청풍호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시선으로 보면 청풍호 때문에 발전이 정지 됐다고 생각해 나는 댐이 정말로 원망스러워! 하지만 나라에서는 댐이 필요하니까 수긍하는 거란다.

“어땠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들려주실거죠?”

“그럼! 그때 이 할아버지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줄게!”

② 청풍호 넌 정말로 나쁜놈이야! (김진국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왔느냐?”

“저 근데 저희를 왜 부르신거죠?”

“너희가 이제 알 나이가 된 것 같아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게 뭔데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올라간단다.”

그날은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어 잠에서 일어나니까 너무 상쾌했고 날도 너무 좋았지 너무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었어 근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 이 마을이 수몰이 되는데!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라니까 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데모 반대 그런 걸 생각 할 수도 없는 시대 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내줘야만 했지. 그래서 땅에 대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또 뭐야?! 우리는 땅을 보상받을 때 타협이란 것도 없어서 자기들이 주고 싶은 만큼 주었던 말이야 그래서 1평에 10000원 하는걸 3000원만 받았다고 근데 촌놈이라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길이 없어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도 했지

우리 마을의 평균 학벌은 중졸은 대부분이 다 넘어 고대 연대는 거의 다 이 마을 사람들이 들어갔지 우리 동네는 부자 동네 였어 수몰되기 전에는 우리 마을은 부자들만 사는 마을이었어 그때는 마을사람마다 논도 있고 땅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하지만 수몰 되고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망했었지 하지만 나는 그 보상금을 받고 호수 위에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순 없잔아? 그래서 거의 모든 자본을 다 아이들에게로 투자 했지 하숙도 못시키고 자취를 시켰지 그때는 택시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아들 딸들을 보러 갔어. 연타불은 잘 타고 있나 확인하러 갔었지.

옛날에는 대학교가기가 정말로 힘들었지 그렇지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아들, 딸들을 대학을 보내려했지 너희들은 공무원이 되더라도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마라 라는 뜻으로 대학을 보낸거야. 이 정부에서 수몰시킨 것은 전두환의 말로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전기에서 관광으로 바뀌었 잔아.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크더라도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난 청주에 다가 집짓고 살려고 땅을 사놨어. 근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300만원을 그냥 흘랑 날려버렸지 그래서 터도 제대로 못 사고 그랬었지,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엉터리 였던거지.

내가 살던 마을은 이 동네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학벌은 중학교 이상이었지. 그때는 왜 부자 였나면 수몰되기 전에는 땅들이 다 비옥했어 들도 정말로 넓었고 그래서 농작물들이 잘 자라서 그만큼 많이 팔고 그래서 부자가 많았던 거지..... 정말로 부자 마을이었지 보통은 표씨가 부자가 많았어 하지만 그건 다 수몰되기 전의 이야기야. 수몰이 되고나서 대부분 다 망했어. 수몰을 반대 하면 되지 않냐고? 에이~ 그런 건 그때 생각도 못했어 정부도 독재였으니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런 건 생각도 안했어.

우리는 7남매 인데 우리 형님은 부산에서 약국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살피라는 임무가 떨어졌지 그래서 70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나 나름 데로 아이들도 잘 키웠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 지곡에서 나가서 들은 넘어 남한강을 나룻배를 타고 학교에 갔어. 내가 어렸을 때는 머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무조건 일들이었던 말이지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 하고 난 중학교를 제천에서 다녔어 제천에서도 난 한 11등에는 들었을 정도로 머리가 똑똑 했지 나는 제천에서 학교를 다닐 때 자취 하면서 그 학교를 다녔어 밥이 떨어지는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마다 집에 와서 쌀과 보리를 반반 섞어서 그걸 들쳐메고 제천까지 걸어갔어 돈이 있었으면 차를 타고 갈수 있었겠지만 돈이 없어서 걸어서 갔지, 그것도 짚신을 신고 말이야 그때는 제대로 된 운동화가 아니라 짚신을 신고 다녔어 그걸 신고 걸어갔지 시간은 대충 하루가 걸렸어. 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 중퇴한 이유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중퇴를 했지

난 그 마을에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어 그건 발로 결혼이야. 지금 내 아내는 같은 고향출신이고 지금까지 계속 알면서 컷어. 그래서 결혼을 했지 이거는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해. 너무 기뻐거든.

전에 하나의 일이 있었지 한감을 빵았어 그런데 마누라가 잘못된건 없는데 녹말이 안되는거야 그때 생각 했지 ‘아 이걸 방앗간이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걸 방앗간에다가 말을 하지도 못했어 이게 바로 촌사람의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왔지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

들은 할 말하고 어디를 가도 할 말은 하고 살라고 말을 했지.

수몰되기 전에 내가 뽕나무를 키웠는데 봄마다 전지를 하러 갔어 그때마다 조그만한 아이가 나를 졸졸졸 따라오는데 정말로 고생 했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시대였어 그래서 강가에 가면 가제라는 게 있어 그럼 그걸 잡아서 밤에 간장에다가 튀겨먹고 그랬지 지금은 그건 건강식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만큼 힘들게 살았던 거야 수몰민들은.....

나는 청풍호를 정말로 원망스럽게 생각 하고 있어! 나도 수몰되기 전에는 부유하게 살았었지만 이 청풍호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 정말로 난 청풍호가 싫어 그래도 늙으니깐 그냥 수긍하고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자나? 그래도 난 청풍호가 싫어 너희들은 커서 그러면 안되 이런 청풍호 같은 일을 하면 안된다고!!

“내가 한말 알아들었니? 아무리 너희가 좋다고 해서 이런일을 저지르지 말라는거야”

“내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 (2)마을을 떠나신 분들의 마음

### ① 내 마을은 살아있지만 뭐가 아쉽다.....(진옥쌤 이야기)

“쌤!”

“왜 그러니?”

“저 논문주제 바꿨어요!”

“뭘로?”

“청풍호로 주제를 바꿨어요!! 어?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밑에 내 학교가 생각나서.....”

“아..... 쌤 죄송해요”

“아니야 이왕 이야기가 나온 거 내가 그 때일을 예기해줄게”

그럼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 해줄게 내가 살던 마을은 아직 살아있어 뭐 농경지 논, 밭 등은 반이 잠겼지만 나머지는 다 살아 있지. 수몰 되던날 내 마을 사람들은 떠난 사람도 많고 그곳에 남아서 지키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그런지 그 인근 지역에는 내가 살던 마을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마을 말고 다른 마을들은 다 잠귀고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는 우리 마을 밖에 없는 거지

우리 마을은 내가 한 16살때쯤 전기가 들어왔어 게다가 차도 다니지 않았지 그래서 충주를 한번 나갈려면 약 8km를 걸어서 가야 됐었지 게다가 학교도 약 2km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맨날 걸어가야 했지 계곡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했는데 그 계곡에는 나무로 다리가 놓여져 있었어 이곳은 장마철이 되면 나무다리가 같이 떠내려가서 학교도 못 갔을때도 많았었어. 그리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마을에 수몰이 됐지, 그러더니 좋은 점도 있더라구 길이 생겨서 차가 많이 드나들 수 있고 충주로 바로갈수 있는 길도 생겨서 차타고 바로 갈수 있게 됐어 정말로 시내 나가는 건 편해졌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몰되기 전까지 그 마을에 살았어 그곳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했지 그 시절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여서 친구들이 너무 바빠서 학교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 그치만 나의 아버지는 학교만큼은 제대로 보내줬어 학교 끝나고 나서 일하고 방학 때 일하면서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갔었어 남의 밭에 가서 모내기를 하고 김도 메고 그랬었지 그리고 그 일을 하고나면 마을에서 밥을 지어줬어 그때는 그 밥이 정말로 맛이 있었어 백미 밥이었는데 나는 그때 많이 먹어보지 못한 밥이지 맨날 집에서 보리밥 잡곡밥을 먹었으니..... 그래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먹는 그 밥이 정말로 맛이 있었지 그리고 학교에서 보수공사 같은 것 들을 하면 학생들이 보자기에다가 나뭇가지나 자갈들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어 또 옛날에는 학교에 난로를 두고 피었는데 그 난로에 넣을 나무를 학생들이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었지 뭐 가끔은 학교를 안가고 농땡이를 부렸던 적도 있었지 그때는 남의 참외밭이나 수박 밭

에가서 서리를 하고 놀았어어 그때 당시에는 서리를 하다가 들켜도 그냥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라”에서 그쳤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면 도둑놈으로 몰리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돼서 친구들이랑 서리를 하면서 신나게 놀기도 했지, 지금 그때 일을 생각 하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것 같아.

나는 수몰되기 전에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내 남편을 만나서 여기로 다시 들어온 거야 들 와서 보니까 정말로 많이 바뀌었더라구 정말로 놀랐지 물론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을은 절반은 살아있어 그래도 다른 마을이 있던 곳이 없고 물이 차있으니까 너무 놀라웠어 지금 생각하면 아쉬 기도해 정든 마을들이 다 물속에 잠귀니까..... 그렇지만 저 호수 덕분에 제천과 충주가 많이 활 성화되고 아름다워져서 괜찮기도 해

### ② 청풍호.....우리들의 마음을 어떡해 할거냐!! (장병락 아저씨의 이야기)

우리 마을은 1구, 2구, 3구로 나뉜 마을입니다. 상용 하용 참실 로 나뉜 마을 이었죠 하지만 이 마을의 주민들은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정든 고향과 부모님의 산소 등 정성이 들어있던 자신의 터전을 놔두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이 마을은 수몰되기 전에 마을 안쪽으로 냇물이 흐르고 담배나 고추를 주로 농사를 짓는 그런 평화롭고 전형적인 농 촌마을이었습니다. 또 대동제에 마을 잔치도 했죠, 하지만 충주댐이 건설되고 나서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지금은 한 10집정도 밖에 안남은 작은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 리가 만나서 술자리를 갖게되면 우리가 통일이 되도 갈수 없는게 우리 마을이다. 라는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박2일 동창회를 이용해서 매년 몇 번씩 만납니다. 그 동네 아이들끼리의 참실회를 만들 어서 1박2일씩 애환을 달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을은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학업 보다는 부모님들의 심부름을 주로 했답니다. 그렇게 초 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바로 청주로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중학교를 졸업 했구요.

우리는 학교가 양평이라는 동네에 있어서 맨날 2km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녔어요. 비가 많이 오면 냇물이 불어나서 학교를 갈수 없을 때도 많았죠 또 겨울에 추우면 학교를 안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땡땡이 도 많이 치고 그랬죠 또 여름이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밭에 들어가서 참외나 수박 같은 것도 서리하면서 놀기도 했어요.

저는 청풍호를 싫어합니다. 저의 고향을 없애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매년 이 청풍호를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묘가 청풍호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찾아 뵈 려면 마다 물속에 가라 앉은 저의 고향을 보기 때문에 그 때마다 고향이 생각납니다.

저는 정말로 청풍호가 싫습니다. 국제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이주를 하긴 했지만 우 리 시장민 들은 물속에 잠겨있는 마을을 보면서 옛날일은 회생하기 때문에 애환 같은 것이 생기 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싫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충주 중부지방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 시설도 많이 훼손되고 학교가 떠내려가고 동네도 떠내려갔지요. 학교가 떠내려가서 그 학교 터에 천막을 짓고 그 밑에서 학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모래 바람이 들어와 서 점심 먹고 있을 때면 도시락 뚜껑을 단아야 됐고 그렇게 살다가 학교가 이전되면서 새로 지어 졌어요. 하지만 충주댐 때문에 그 학교는 또 수몰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2번이나 학교가 사 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 ③ 청풍호가 가져간 옛 추억들(장병만 아저씨의 이야기)

내가 살던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수몰이 되기 전에 120가구나 있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주업은 역시 농업입니다. 주로 고추, 담배를 수확했고 이 마을의 80%는 청풍 김

씨와 인동 장씨가 차지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의 특별한 풍습이 있다면 논사를 하다가 가뭄이 들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남한강에 가서 다라에 물을 담아가지고 서로 뿌리고 그러면 며칠 안에 비가 왔다는 그런 신기한 일들도 있어 습니다. 이렇게 정든 마을이 그 호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물위에 남은 땅에 다시 마을을 재건하고 다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한 6km정도 떨어져 있어서 맨날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비포장 도로여서 신발에 흙이 다 묻어서 학교가기가 곤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학교를 갖다오면 전 공부할 시간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거의 저의 친구들은 학교를 갖다오면 집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야 됐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로요. 보통때 하는 일은 풀을 베거나 소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하루 종일 먹고 오고 고추, 담배를 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학교까지 잠겨서 일주일동안 학교도 못가고 집에만 있었죠. 그때는 정말로 심심했습니다. 친구들도 없으니까 말이죠. 아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저의 오랜 친구들..... 저는 고향친구들이 그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열어 매년 만나고 있습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용곡리 출향인 한마당 축제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만나면 이야기 만 나누면 아쉬워서 다 같이 웃놀이기도 하고 즐다리기도 하고 장기자랑도하면서 놀았답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동아리 비슷한 걸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 동아리가 한13개정도가 되죠. 저도 하나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많이 만납니다.

저는 농촌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청풍호가 생기고 이주를 했을 때 도시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답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하지? 생각도 하고 낯선 타향 땅에 서 사니까 잠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하고 망연자살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도 많더라구요. 하지만 저를 바라봐주는 가족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나서 도시 생활에 잘 적응 해나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을의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고 가죠. 제가 젊었을 때 도박 같은 걸로 돈을 날려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도둑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방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 손에 방망이를 하나씩 쥐고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면서 다녔죠. 그러면 밖에서 놀고 있던 사람과 도둑들은 무서워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 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많이 흐뭇 했던거 같습니다.

### (3) 제 3자의 시선

#### ① 청풍호..... 과연 좋은가?(신풍식당 할머니의 이야기)

옛날에는 수산이 덕산 보다 더 좋은 동네 였어 5일장도 엄청 크게 열렸지, 폐지도 팔았을 정도로 큰 5일장이었고 인구도 많았었지, 근데 충주댐이 생기고 나서 그 전의 생활이 많이 없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서 수산의 인구수가 정말로 많이 줄었지 그래서 여기 남은 사람들은 충주댐이 건설되고 사람들만 빠져나갔지 덕 된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또 좋은 점도 있겠지 그건 말이야 조금 전 온 사람들도 10월12일에 하는 자드락 길 걷기 대회에 참가해서 13일에 점심을 먹으려고 검토 하고 간 거야. 즉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거지. 상천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했어 그곳에 초등학교도 있었고 그런데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렸어 그곳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시집을 갈 때가 되면 쌀 3말만 먹으면 시집을 갈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논도 없는 두메산골 이었는데 지금은 호텔도 짓고 땅값도 비싸지고..... 즉 댐 덕분에 그곳은 관광지로 개발이 된 거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떠날 때는 땅값이 2~3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50~70만원으로 훌쩍 뛰어버린 거야 그

만큼 개발이 많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상촌은 더 올라갔어.

충주댐이 건설되고 나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 식당의 손님들이 많아 졌지. 그전에는 시장을 열면 정말로 짹짹했어. 그때는 이 막걸리를 하루에 12개씩 팔수 있을 정도였지 하지만 그 댐 때문에 옛날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

② 도시를 나갔다 왔는데 마을이 사라졌다.....(김수미씨의 이야기)

저는 중학교 1학년때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결혼하고 25살 때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전 가람 식당을 차리기 전에 농사일도 하고 저의 남편이 어부라 어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작년에 동생이랑 같이 이 가람 식당을 차리게 됐죠.

청풍호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 어려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구나' 라고 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허전하고 다시는 갈수 없어서 그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풍경이 그립네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못 보니 더 그립습니다.

청풍호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누구는 기회다 하면서 외지로 나갔고 누구는 이 고향을 버릴 수 없다면 호수 위에 땅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분이 저희 친정 할아버지입니다. 전 청풍호가 개인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냐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보다 금전적인 이익을 벌수 있었는데 그것이 잠귀어서 아쉽습니다. 그 금전적인 일이 무엇이나면 바로 우리 마을의 관광지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의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워서 충분히 관광지가 될 수 있었는데 못 되서 아쉽네요.